

# K-FARM 귀농귀촌 박람회

## 함평군 홍보관 '복직복직'

농특산물 시식·품질관리법 등 농업정보 제공



함평군이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9 K-FARM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과 귀농·귀촌 홍보에 적극 나섰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민신문사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이번 박람회는 '농업으로 희망을 농촌에서 미래를'이란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총 3일간 열렸다. 이날 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예비 귀농인의 집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 사업 등 본격적인 귀농 전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선배 귀농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시식하고 품질관리법 등 농업정보도 함께 제공하면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업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층에게 새로운 도전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함평이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최적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 프로그램' 실시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일과 18일 총 4회기에 걸쳐 장흥회덕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진행 중이다.

이번 장흥회덕중학교에서 진행된 대안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 미디어와 도자공예의 공통점 및 차이점, 도자기 성형과정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이 청자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스마트 미디어와 다른, 느림의 미학을

체험하며 자기만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88 청소년전화 운영, 진로·학업·부모자녀·친구관계 상담, 인터넷중독에 방교육, 진로탐색, 찾아가는 거리상담, 심리검사, 학습코칭, 학급응답력 향상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학업중단수리제, 가정법원 위탁교육,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대안교육 위탁 프로그램, 경찰서 사령의 교실 등 장흥군지역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 화순군, 도로명 주소·지적재조사 홍보

화순군은 최근 화순읍 하니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5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5회차 강연에 참석한 군민, 공직자, 관계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와 지적재조사 홍보 활동을 벌였다.

군은 '도로명 주소 조금만 알면 정말~편리해요'를 주제로 실생활에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등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알리기

위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의의, 절차 등을 안내하고 도로명 주소와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 물품을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도로명 주소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담양문화예술제-해동의 밤' 문화예술행사 개최

27일부터이틀간 해동문화예술촌서

담양군이 주최하고 (사)담양예총(회장 송창근)이 주관하는 '2019년 담양문화예술제-해동의 밤' 문화예술행사가 오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에서 개최된다.

'2019년 담양문화예술제-해동의 밤'은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의 문화예술공간을 지역주민 문화행사 참여 기회 확대 및 해동주조정의 역사성을 담아내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담

양다음의 문화예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이다.

'2019년 담양문화예술제-해동의 밤' 행사는 담양읍내에서 활동하는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함께 10여개의 각 읍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및 단체 신청을 접수하여 선정된 팀에 한하여 경연대회를 펼친다.

행사가간 중에는 해동문화예술촌의 전신인 해동주조정의 추억을 살리고자 막걸리 각테일 바가 운영되며 이외에도 두부김치와 주먹밥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담빛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체험 프로그램과 팽퍼라와 클래식 연주, 퓨전무용, 추억의 7080 등의 우수공연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영광군 불갑 테마공원 천년방아 운영 확대

전국최대규모 물레방아 평일·주말 가동 불거리 제공



영광군은 2019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갑사 관광단지 및 불갑저수지수변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불갑 테마공원의 상징인 천년방아를 주말 가동에서 26일부터 9월 말까지 평일에도 운영 한다고 밝혔다.

불갑 테마공원은 총 면적 82,302㎡에 전국최대규모의 물레방아, 연못, 폭포, 분수대, 대규모 주차장 등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불갑사 관광단지 및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영광군은 테마공원 주변 풀베기, 연못 청소, 방역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이 시시물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완료 하였으며 천년방아의 시원한 물줄기와 웅장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천년방아가 영광군의 상징물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나주새일센터, 올해 직업훈련교육 마무리



나주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했던 2019년 직업훈련교육을 마치고, 수료생57명을 배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주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직업상담, 취업연계, 직업훈련, 여성인턴사업 등 원스톱(One stop)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일자리 기관이다.

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을 통해 올해 들어 직업훈련교육 과정을 신설, 고부가가치 직종인 '드론강사전문가' 과정을 비롯해, 사무직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행정 마스터', 사회적 수요가 높은 '웰빙한식조리사' 등 3개 교육 과목을 운영했다.

특히 도내 최초 실시한 드론강사전문가 과정은 교육생들이 드론 동작과 기능을 직접 제어하고, 전문적인 조차

법을 익히는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

드론강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교육생들은 지역 초·중·고교 방과 후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수료생 17명은 신한희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사회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신한희망사회프로젝트는 나주새일센터 직업훈련 교육생 중, 취약계층을 선발, 1인 당 최대 300만 원의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해 '소득 크레바스'(직장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를 방지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진아 센터장은 "미래 4차산업시대 핵심기술인 드론분야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센터는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의 든든한 일자리 동반자로서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성군, 스포츠 마케팅 농부신 성과 나타나

장성군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스포츠 마케팅이 올 여름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장성군은 지난 20일 대한펜싱협회 청소년 국가대표 53명이 하계 전지훈련을 위해 장성군을 찾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표팀은 오는 8월 8일까지 20일 간 장성군 흥길동체육관에서 전지훈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 선수들은 훈련이 없는 주말에는 축령산 펜백숲과 황룡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성필암서원 등을 돌아보며 장성군이 지닌 천혜의 자연과 문물여성의 전문화도 직접 체험해볼 계획이다.

군은 앞선 6월에도 부산, 영광 등 5개 시·군 고교 검도선수단 70여 명과 부산항만공사 조정선수단인 하계 전지훈련을 위해 장성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또 7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학 조정대회를 장성호에서 개최, 12년 연속으로 전국 규모의 조정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군은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제 규격을 갖춘 축구장과 다목적 구장, 트랙, 씨름장 등을 구비한 종합 스포츠 시설인 '상무평화공원 축구장'을 개장했다.

